

民族史의 바른 認識

李 鉉 淙

(國史編纂委 委員長)

1. 民族史 認識의 길

우리가 民族史를 理解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의 처지에서 지난날에 이룩한 祖上의 生活相을 되돌아 보고 우리의 未來에 대한 發展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데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民族史觀에 바탕한 民族意識을 양양하면서 우리 歷史를 통해 우리 民族이 生存發展하여 온 原動力은 무엇이며, 그같은 原動力을 이루어 주었던 發源의 인 힘의 力量과 底力은 무엇인가를 우리 民族의 內部에서 찾아 보자는 것이다. 이는 바로 우리 國力 즉 精神과 힘을 아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國力은 안으로 政治, 外交, 軍事, 經濟, 社會, 文化, 思想 등이 民族意識을 바탕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나타난 힘이며 밖으로는 우리의 自主性을 드높여 民族과 國家와 文化를 수호하는 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民族史觀이란 바로 우리 民族史가 전개되고 발전되어 온 것을 안으로는 內在的인 要因을 깊이 추구하며 밖으로는 民族의 自主的인 位置를 확고히 하는 歷史認識 方法論의 하나를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民族史를 理解하는데 있어서 한국사의 全時代를 통하여 민족의 주체성을 살리고 전시대의 성격을 세계사적 시야에서 폭넓게 인식하며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활동하여 온 내재적인 발전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民族史가 전개된 全過程을 바르게 인식하자는 것이

다. 이를 위하여 民衆의 환동과 참여와 自主性, 창의성과 개척정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未來志向的인 방향으로 역사인식의 바탕을 정립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의 生存을 위해 활동하여 온, 우리 민족의 생활사를 바로 인식하면서 현재 민족이 영위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民族의 자주 정신과 문화 능력을 재인식하고 여타가치 측면에 따라 다양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역사를 전진시켜 온 사실, 즉 古今이 단절될 수 없는 전통을 찾아 自己 스스로를 새롭게 발견하고 발전시켜 현재는 물론, 다가오는 미래에 대응시키는 힘을 기르는 동시에 世界史의 흐름 속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더욱 힘쓰고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보다더 강한 民族主體性을 확립하고 현재의 우리 위치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슬기롭게 定立, 認識하기 위하여 民族의 傳統과 遺産을 이해하고 우리의 脆弱性和 虛點을 스스로 깨우쳐서 改善, 改革해 나가며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主體的 民族史觀의 定立을 위하여 우리 민족이 살아온 역사속에서 자주적인 노력으로 발전하여 온 民族의 예지와 창조와 노력과 개척정신을 높이 認識하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제침략하에서 식민 통치수단으로 植民史觀에 의하여 우리 [民族史를 歪曲하고 그릇되게 해석한 것을 바르게 고치고 새로운

史觀에 의하여 우리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나는 우리 民族史의 저변에 연연히 흐르는 自主, 創造, 改革의 精神이 상호보완 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온 것으로 認識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 民族史의 추진력이 우리 民族 스스로의 自主의이고 창조적인 底力에서 우리나라의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한 民族의 自主의이며 創造의인 力量이 축적되어서 그것이 民族의 전통으로 나타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民族文化의 발전적인 흐름속에서 우리의 전통이 이루어졌고 또 그같은 民族의 전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서 다시 창조 발전되어 미래사회의 건설을 위한 원동력으로 되어야 된다. 우리 民族의 底力인 自主성을 드높인 구체적인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깨달고 이같은 정신을 후손에게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의 民族史觀을 새롭게 定立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살아온 역사를 다양한 方法論을 도입하여 더욱 폭넓게 연구하여야 한다. 民族文化의 전통적인 성격을 發展志向의으로 바로 파악하는 한편 우리 歷史를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기초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民族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歷史에서 언제나 역사창조의 主體로서 파악되고 인식되어 온 것임을 깊이 깨닫고 영원히 계승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역사창조의 주체로서 民族은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民族史觀을 정립해야 되고 자주독립과 國難克服 그리고 創造改革의 意志를 높이 평가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내것만이 최고라는 그릇된 판단에 흐르기 쉬운 점도 알아야 한다. 우리는 文化理解의 폭을 더욱 넓혀 民族의 文化를 世界史 속에서 새롭게 이끌어 나가며 世界史 속에서의 韓國史인 점도 인식하여야 진정한 民族史觀을 확립하고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서 우리 역사는 바르게 인식될 것이다.

II. 民族意識의 脈絡과 展開

우리 민족이 유구한 歷史를 전개시키고 活動하여 온 정신과 意識의 맥락을 찾아보면 다양하

면서도 서로 連繫性을 갖고 相乘·補完作用을 하는 가운데 슬기롭게 調和를 이루면서 발전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根幹을 이루었다고 여겨지는 意識과 精神은 自主·創造·改革의 精神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족의 안전한 生存과 國家의 발전, 그리고 福祉社會 건설을 목적인 것이며 未來社會에 대한 對策과 적응력을 기르는 데 있었다. 이제 그것을 간추려 본다면,

첫째, 自主精神이다. 이는 자주독립의 유지보존을 목적인 것이며, 자주독립국가를 유지하려는 精神이다. 그것은 外勢侵略時에 國難克服의 정신으로도 나타났고 또 그런 과정에서 獨自의인 민족문화의 創造, 保存, 繼承, 發展을 위한 능력으로도 되었던 것이며 일제 침략하에서의 主權回復을 위한 獨立運動도 자주정신에 바탕을 둔 것이다.

自主精神은 國家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意識으로 민족의 생존과 獨立國家를 유지하고 전개하며 계승 발전시켜 준 民族史 전개 原動力이 되는 것이다. 이같은 自主意識이 없었다면 유구한 우리 歷史가 전개될 수 없었고, 周邊에 있는 異民族이나 외국의 침략에 대해 준 기찬 抗戰을 통하여 國難도 克服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時代에 따라 나타났던 여러가지 위기에서도 굳건하게 國家를 수호하는 정신과 힘이 되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우리 民族은 全력을 다하여 外役을 이겨냈으며, 그같은 자주정신이 우리 민족을 지켜준 것이다.

둘째, 創造精神이다. 이는 어느 民族이나 공통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양상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創造物이나 創造된 결과의 우수성 여부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여 준다. 歷史發展이 時代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던 우리 民族의 創造精神은 참으로 훌륭한 것이었다. 이는 個人이나 民族이 스스로의 力量을 民族과 國家를 위한 것으로 확산 승화시킨 때문이며, 民族의인 文化創造만이 아니라 한걸음 나아가 內外的 시련을 극복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것은 人間이 지닌 私慾, 즉 利己的인 慾心에서 벗어나 개척 진취적인 정신으로 민족과 國益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의 정신과 힘은 개인 또는 민족의

지혜를 對外的으로 가장 잘 나타내는 능력이 된다. 동시에 이는 개인, 민족, 국가의 富와 國益을 안겨주는 가장 빠른 尺度가 되기도 하며, 社會, 民族, 國家, 그리고 人類의 生存에 가장 잘 이바지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날의 世界도 어느 民族이나 國家를 막론하고 이를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文物創造의 능력은 우리 스스로가 개발하기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外來文物을 選別的으로 수입하여 우리의 傳統文化와 슬기롭게 조화시켜 나갔다.

이제 우리는 傳統文化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文化創造의 基本精神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우리 民族은 오랜 歷史를 전개 발전시켜 오는 동안 傳統文化의 바탕위에서 언제나 未來志向的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民族文化를 시대에 따라 더욱 살찌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傳統文化의 核에다가 그 核운동의 힘이 되는 營養素로서 새롭게 창조한 文化를 추가 공급해서 民族文化를 活性化시켜 나간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傳統文化는 民族精神과 文化의 核을 근원으로 하여 확산되어 가는데 이때 前進하는 화살표가 쉬지 않고 加速的으로 나아가야 民族文化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國力도 크게 쫓는 것이다.

이 活力素는 바로 時代에 따라 새롭게 創造한 文化와 民族精神을 말하는데 그것은 動力과 資源으로서 공급해 주어야 文化創造의 추진력이 가속화되고 운동력을 활발하게 한다.

오늘의 세계인구는 45억이 넘었다고 한다. 우리 民族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세계의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民族이나 국가가 이룩한 文物도 選別的으로 흡수하여 우리 文化發展의 外延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항시 創造해야 되고 또 外來文物을 選別的으로 받아들여 우리 것에다가 슬기롭게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오랜 歷史를 展開시켜 오는 동안 海外文物交流 過程에서 調和能力을 보여 주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外來文物을 選別

導入하는 能力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流入된 外來文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만약 選別能力과 調和能力이 없어진다면 체제도 없이 流入된 外來文物이 우리의 民族文化 및 傳統文化와 새로 창조하는 文化보다도 비중이 커질 때 우리 傳統文化는 外來文物에 휩싸이고 民族文化는 위기에 빠지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정신과 意識이 파괴되어 國家마저 위기에 빠지는 것이다. 이는 女眞族이 오늘날 국가를 이루지 못한 경우와, 반대로 日帝侵略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獨立을 쟁취한 것과 비교할 때 아주 대조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民族史의 오랜 발전과정에서 보여준 우리의 슬기와 지혜는 民族意識의 맥락을 굳혀 前進하는 자세로 나타났던 것이다.

또한 文物交流도 大陸으로는 文化民族으로 본 漢族 또는 夷라고 보아오던 非漢族관계가 우리에게 주었던 충격속에서도 文化民族과 非文化民族의 개념인 華夷觀에 차이를 두면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漢族文化는 우리에게 알맞게 조화시켰으며 非漢族의 경우는 夷로 취급하여 그것과 구별되는 우리 文物을 이룩하여 自負心과 긍지를 갖고 獨自的인 文物을 이룩한 것이다. 日本의 경우도 夷의 개념으로 처리되었던 것이다.

세계, 개혁정신이다. 언제나 새로운 時代의 歷史發展을 위한 未來志向的인 개혁 의식이었다. 이는 意識면에서나 제도적인 면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 歷史의으로도 부족국가의 혼어진 상황에서 古代國家의 성립과 함께 統合되어 가는 과정에서 三國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다시 통일된 국가로 新羅가 나타났다. 이것은 뒷날 後三國으로 분열되는 혼란을 빚기도 하였으나 高麗의 再統一과 함께 혼란도 수습되었다. 이처럼 언제나 통일된 민족국가를 志向한 念願을 이룩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굳건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意識에서 나온 것이다. 制度의 개혁으로는 新羅 때의 讀書三品科나 고려 때의 科擧制度 등도 두드러진 것이라 할 것이다. 高麗末의 혼란을 수습하고 건국한 朝鮮王朝는 世宗時代에 들어와 民族文化를 이룩하면서 미치지 못한 改革을 출몰 계승하여 民族文化의 발전을 위한 터전을 이룩하였다.

또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뒤에 미래를 위한 개혁으로 自我省察의 學問으로서 實學이 나타났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夷로 취급하던 倭·野人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사실을 냉철하게 비판하여 우리가 침략을 당한 원인이나 폐배 원인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淸우치면서 다시는 그같은 치욕적인 일이 전개되지 않도록 하려는 意識에서 나온 것이다. 이같은 반성은 침체된 정신을 가다듬게 하고 또 義兵蜂起와 抗日鬪爭 등 우리의 自救策으로 연결되었다. 自我의 비판, 반성을 통한 개선책과 개혁의식으로 나타난 實學의 정신에서 바로 改革精神의 대두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비록 國家施策으로 받아들여 지지는 않았으나 대대적인 改革과 改善을 추구하면서 학문개혁, 사회개혁, 행정개혁 등 광범위하게 개혁을 시도한 데서 그 특색이 있는 것이다.

近代에 이르러서는 興宣大院君의 개혁을 들 수가 있다. 이는 未來志向의이라기 보다는 復古的인 改革性이 농후하였지만 세도정치에서의 모순을 개혁하여 바로 잡아보려던 精神과, 실제로 改革을 성공시킨 점은 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후 근대사회로의 진전과 더불어 開化自強하려는 意志를 보인 1884년의 甲申政變 등은 두드러진 사례라 할 것이다.

또한 1910년 주권상실 후 일제침략의 무단통치하에서의 3·1運動은 바로 주권회복을 위한 民族的 自救策으로서 민족전체의 의사로 표현된 민족주의의 근대화였으며, 이로써 民族主義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 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군주제를 버리고 근대정치체제인 共和政을 채택하였다. 이런 점에서 3·1 운동은 정치적 개혁인 동시에 民族主義의 새로운 단계로 넘어서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改革精神의 구현이었다. 그같은 意識은 독립전쟁으로 발전하여 바로 光復運動의 정신으로 승화되었다. 오늘날은 분단된 祖國의 통일을 위한 민족적 의지를 키워 나가야 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혁을 통한 民族과 國土統一의 길로 志向시켜야 할 단계이다.

Ⅲ. 個人·社會·國家와 連繫性 認識

우리 歷史에서 보여준 각 개인들의 국가관과 인생관은 자기가 사회와 국가에 연결되는 일체감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그런데서 忠孝一體感도 나왔고 그같은 意識은 삼국통일을 도모하던 화랑도의 생활양식에서, 國難을 克服한 義兵들의 檄文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다. 화랑도들의 생활지침인 五戒를 보면 事君以忠, 事親以孝, 交友以信, 臨戰無退, 殺生有擇으로 教養教育과 道義生活로서 忠孝의 一體感, 社會生活, 戰爭哲學을 동시에 연마하면서 평소의 생활과 수양과 훈련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忠孝와 仁·義·禮·智·信의 倫理道德으로 個人, 民族, 國家의 一體感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統一期의 정신을 가다듬으며 아름다운 정신에는 석석한 肉體가 짝하여 表裏關係를 이루는 靈肉一致思想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정신은 연년히 계승되었고 특히 1592년 壬辰倭亂때의 義兵檄文을 보더라도 “임금이 辱을 보면 臣下가 죽는 것이 義理이니 臣下가 忠義를 다하여 목숨을 바칠 날을 당한 것이다. 임금을 잊지 말고 다시 中興의 큰 基業을 기약할 것이며 義兵檄文을 공람해 보고 후일에 심각한 淸우침이 없게 할 것이다. 무릇 忠君愛國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文武와 前御 尊卑, 儒生, 閑良, 奴隸를 불문하고 이달 27일까지 參禮驛 앞으로 모이라”의 사례로서도 알 수가 있다.

이같은 정신은 日帝侵略의 武斷統治하인 3·1 운동 때의 宣言文을 보아도 “吾等은 玆에 我朝鮮의 獨立國임을 宣言하노라.”로 시작하여 끝의 公約 3章中 제 2항에서는, “最後의 一人까지 最後의 一刻까지 民族의 正當한 의사를 徹히 발표하라”고 하였다.

이처럼 古代 三國時代 花郎精神으로부터 現代에는 3·1운동의 宣言文에서까지 個人, 社會, 國家의 일체감을 나타내는 맥락을 이어주고 있다. 이는 우리 民族史에서 보여준 個人과 社會 그리고 國家는 서로 뗄 수 없다고 여겼던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는 나와 우리 民族을 生存시켜 주고 우리의

文化創造를 합리적으로 슬기롭게 조화시켜 온 민족의 精神인 맥락이다. 이 모두가 民衆에게서 나온 것이요, 그같은 民衆의 의식과 힘은 國家라고 하는 組織과 制度가 바탕이 되어 가장 효과적으로 전진케 한 데서 民族史의 발전에 기여케 하였던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民衆 스스로가 참여하고 또 國家가 참여케 한 데서 이루어진 조화이며 그 속에서 民族과 國家는 무한히 발전하였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거나 못했던 때는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國力도 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경우 단일 민족이므로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團體와 社會構成員의 일원이 되는 동시에 민족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국가로 향하는 국가 구성의 核心이 되는 것이라 여겼다.

한편 個人이 集團을 이룰 때 크고 작은 많은 團體가 生成하고 이는 나아가 社會를 이루게 된다. 그것은 最高組織으로서 理念을 바탕으로 하여 가장 큰 단체로서 國家를 이루게 된다. 이때 個人을 血緣關係로 보면 民族을 구성하는 기반이 되고 그것이 하나로 조직화 할 때 國家가 되는 것이다.

이래서 각 個人은 어느 경우에도 社會와 國家構成的 基本要素로서 어느 경로를 통하든지 궁극적으로는 國家組織이라고 하는 大編制에 들어가 個人, 社會, 國家라는 일체감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개인은 자기 자신이 성실한 행동으로 노력하고 봉사하면 民族과 國家를 위하여 獻身하는 길이 되며 그런 속에서 이룩된 개인이나 국가는 안정과 번영의 혜택을 되돌려 받는 것이다. 그같은 순환이 순조롭고 전진할 때 무한한 발전적인 역사를 창조할 수 있으며 精神, 意識, 文化面에서 국민의식을 크게 향상시켜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個人의 힘이 합쳐져서 단체가 되고 社會를 형성하며 國家發展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는 文化創造가 이룩되는 것이다. 일제 침략 때는 한국인 個人, 社會와 民族은 있었으나 국가가 없었으므로 姓까지 강제로 바꾸어져야 되는 치욕을 당했던 것이다.

Ⅳ. 民族史의 계승 발전

우리 民族은 周邊民族觀에서 언제나 주체성을 갖고 文化民族으로서 자부심과 긍지 위에서 다른 민족을 보아 왔다. 우리의 周邊民族을 보면 生成消滅이 되풀이 되었으나 우리 民族은 時代에 따라 國名은 바뀌어지면서도 단일민족으로서 유구한 歷史를 전개시켜 오면서 對外民族觀을 조절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近代로의 전환점에서 日帝侵略으로 이어져 主權을 빼앗기면서 民族史觀에 의한 우리 歷史 연구를 근대적인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놓쳤다. 그같은 결과가 급년에 일본 역사 교과서의 한국사 왜곡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우리로 하여금 民族史의 인식을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고 있다. 이제 光復으로 되찾은 우리 民族의 활동은 民族意識의 맥락을 再具現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그같은 활동이 民族精神을 계승, 발전시키며 民族文化를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바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民族精神을 기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며, 동시에 統一後 민족화합을 위한 對備策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처럼 民族史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유구한 우리 歷史의 展開過程에서 우리는 언제나 國力이 伸長되고만 있지 않았음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야 한다. 發展의 인 때가 많았으나 때로는 침체 상태에 놓여서 고난을 겪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外勢侵略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國難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우리의 文化와 精神이 바탕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항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의 民族이 生存하려면 國家를 이룩해야 하고 그 國家를 維持발전시키려면 그 營養素로서의 創造的인 文化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깊이 생각하고 歷史認識의 폭을 넓힐 때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民族의 나아갈 길이 되리라 여겨진다. *